

29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5937.66 (-74.78)	753.23 (-18.05)		
↓ 금리 (한국은행)	↓ 환율 (한·달러)		
3.766 (-0.033)	1336.8 (-0.9)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서울 5km 이내 그린벨트 6곳 풀어 7만6700가구 공급

국토부, 8·13 후속조치
“실수요자 선호 우수 입지
2030년 내 착공이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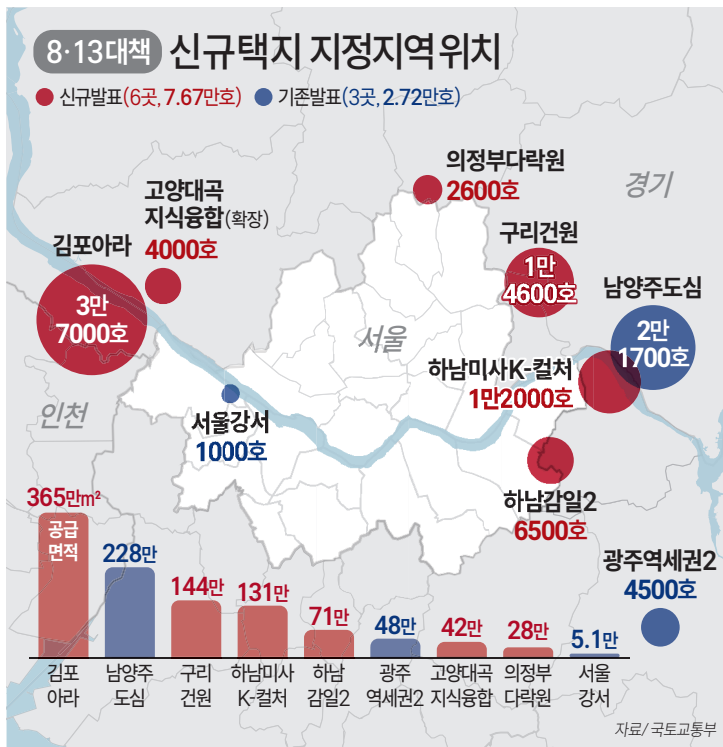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6곳에 7만67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8.13 주택신속공급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앞서 8·13대책을 통해 총 10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등 2만7200가구 규모의 입지를 공개했다.

이번 후보지는 김포아라(3만7000가구, 365만㎡), 구리건원(1만4600가구, 144만㎡), 하남미사 K-컬처(1만2000가구, 131만㎡), 하남갑일2(6500가구, 71만㎡), 의정부다락원(2600가구, 28만㎡),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4000가구, 42만㎡) 등 6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km 이



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좋다. 또 이미 훼손이 진행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

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대한 착공모형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아라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 입지다. 인근에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고, 김포한강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위치해 지역간 이동

이 편리하다.

구리건원은 장기간 보류된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대신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가깝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하남미사 K-컬처는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있고, 주변에 3호선과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남갑일2는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기존 갑일지구와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한다.

의정부다락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 가깝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은 GTX-A 등 5개 노선이 지나는 대곡역 일대다.

정부는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형’을 신규 택지 6곳에 적용한다. 지구지정 단계부터 절차를 앞당겨 2030년 내 착공한다는 목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경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글로벌 에너지경쟁 우위 확보 해법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충, 발전원 다변화 등이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부터 차세대 에너지 기술 확보, 공급망 고도화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찾고,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과제를 진단하고 전후방 산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불가 K-에너지: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을 개최합니다. 정부와 산업계, 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행사명 :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 ◆주 제 :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 ◆일 시 : 2026년 11월 10일(화) 14:00~17:00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 ◆주 최 :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
- ◆후 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 ◆문 의 :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metro

분기영업익 100조 시대 열어… 전년비 783% ↑

삼성전자, 3분기 107조 기록
반도체 사업서만 106조 벌어들여
매출·영업익 4분기 연속 최대
DX 매출 52조, 8000억 손실
올해 주주환원 규모 최대 110조

삼성전자가반도체 사업에서만 영업이익 106조5000억원을 기록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분기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3분기 현금배당 30조원을 포함한 올해 전체 주주환원 규모는 최대 110조원에 이른다. 추가 환원 규모는 최대 75조원이다.

<관련기사 3면>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9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늘었다. 영업이익도 107조4405억원으로 783% 증가했다. 순이익은 7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4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뉴시스

실적 개선은 반도체 사업이 이끌었다.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147조1000억원, 영업이익 10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메모리 매출은 전분기보다 16% 증가한 140조7000억원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4 판매 확대와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가 실적을 뒷받침했다.

삼성전자 DS부문의 영업이

익만으로도 SK하이닉스의 3분기 전사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약 23조원 웃돌았다. 엔비디아와 TSMC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최근 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100조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메모리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AI 서버 중심의 수요 증가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7년에는 올해보다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52조1000억원에도 영업손실 8000억원을 냈다. 모바일경험(MX) 사업은 갤럭시 Z 폴드8 등 신제품 출시로 매출이 전분기와 전년 동기보다 늘었지만, 원가 부담으로 전년보다 이익이 감소했다.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 사업도 원자재와 물류비 부담 등으로 영업

손실 2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삼성디스플레이(SDC)는 중소형 신제품 출시와 원가 절감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하만도 전자·오디오 제품 판매를 이어간 가운데 미국 관세 환급 등 일회성 요인이 반영돼 영업이익 6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사업 부문별 실적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도 공개했다. 3분기 현금배당은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주당 4601원이었다. 올해 전체 주주환원 규모는 9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제시했다. 이미 집행하거나 확정된 35조원을 제외한 55조원에서 75조원은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전역 채용의 최종 규모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2027년 1월 이사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미래에셋증권, 日산코증권 인수

476억 규모 지분 100% 취득
내년 3월까지 인수 마무리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등록

미래에셋증권이 일본 증권회사오카산증권그룹산하산코증권을 인수한다. 일본 현지 증권업 라이선스를 확보해 주식·채권 거래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에셋증권은 29일 미국 종속회사인 ‘미래에셋증권홀딩스USA(US Holdings)’를 통한 산코증권 지분 100% 취득과 이를 위한 출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약 476억원이다. 인수 절차는 2027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코증권은 도쿄 주오구에 본사를 둔 회사다. 오카산이 2022년 10월 주식교환으로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자회사로 만들었다. 지난 5월 개인 고객을 같은 그룹의 증권재팬으로 넘긴 뒤 자기매매에 집중해 왔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고객 돈이 아닌 자기 돈으로 주식·채권을 사고팔아 이익을 내는 사업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개인 고객 사업이 포함된 작년 4월~올해 3월 회계연도 순이익은 4800만엔이다. 순자산은 46억엔 정도로, 인수 금액과 비슷하다.

미래에셋이 노린 건 면허다. 산코증권을 사면 일본의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등록을 넘겨받는다. 주식·채권을 사고팔고 기업이 새로 찍는 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일본 증권업 면허다. 새로 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미래에셋은 산코증권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고 조직을 키울 계획이다.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상품 판매는 오카산과 손잡는다. 미래에셋 계열 ETF(상장지수펀드) 운용사 글로벌X의 상품을 오카산 고객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 /사진 뉴시스
- ▲민주 “국힘, 선관위 특검 ‘투표지 검증’ 결과 승복 약속하라”

- ▲오세훈 “조희대 탄핵 추진은 만행…국민 두고 보지 않을 것”
- ▲주진우,李大통령 부부 ‘황제 골프’ 의혹 경찰 고발

-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 ▲서울시, ‘재정난’ 서울 지하철 빛 상환에 1천억 추가 지원 추진